

녹색당 청년정책 집담회

[제2회] 청년들이 바라본 녹색당

발제: 김수련 / 한영섭 당원

2015. 8. 15. (광복절) 오후 1시~3시

환경재단 1층 레이첼카슨홀 (시청역 10번 출구)

청년녹색당

<목차>

1. [김우빈] 앞으로의 청년을 고민하며
2. [김수련] 제2차 청년정책 집담회 - 보건의료 발제
3. [한영섭] 어떻게 '청년'이 녹색당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

<참고: 제1차 청년정책 집담회 다시보기>

<http://young.kgreens.org/295>

앞으로의 청년을 고민하며

김우빈 당원

사실 1차 집담회의 성격은 "청년정책의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몇몇 당원이 제기한 '포괄적이었다'는 지적은 당연합니다. 다만,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 제대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인 듯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들이 바라본 녹색당'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청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당원은 "청년은 없지만, 청년 문제는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청년은 있지만, 청년문제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의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열정페이/아르바이트 꺾기' 등의 문제는 청년층이 주로 겪는 문제지만, 넓게 생각해보면 질 낮은 일자리에서 맴도는 청년들의 가난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청년일 자리를 늘려주겠다는 '임금피크제' 논쟁을 잘 살펴보면 청년세대뿐 아니라 정년을 바라보고 있는 세대까지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문제를 대하는 녹색당의 입장은 무얼까 생각해봅니다. 여태의 선거에서 녹색당은 청년 정책을 따로 꼽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없다 — 다시 말해 청년들에게만 국한되는 사회문제는 없다는 생각에서 본다면, 녹색당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만 따로 내지 않는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구조상으로 청년에게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청년당원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명 녹색당의 정책 속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집담회는 녹색당 정책들에 녹아 있는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읽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청년의 선택은 왜 녹색당이어야 하는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당의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녹색당만이 선점하여 가져갈 수 있는 의제가 있는지에 대한 집담(集談)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혹 녹색당의 목표가 정치를 통해서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대전제라고 생각한다면, 녹색당에서 이런 청년의 고민을 어떠한 정책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집담회에서는 이전의 정책들을 검토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다만 9월에 있을 정책당대회에서 집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비판, 고민점, 재해석을 발표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단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닌, 이 토론이 작은 씨앗이 되어 앞으로의 녹색당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청년정책 집담회 - 보건의료 발제

김수련 당원

1.서론

보건의료 분야는 일반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영역에 속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선 한국 보건의료의 중심에 있는 병원과 의료인들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집단 중에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에 속합니다. 또, 보건의료 제도와 의료보험 체계는 현 실정과 얽혀 돌아가 의료계 내외 사정에 익숙지 않으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까지 많은 정보를 미리 학습해야 하고, 제도가 한번 변화할 때마다 많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오랜 시간 여러 입장을 들여보지 않으면 편향적인 시각을 습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다 그 복잡성에 비해서 책 보기에는 지금 당장 문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죠.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요. 또 청년들의 특성상 아직 그다지 병원과 친할 나이가 아닌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겠죠. 막상 또 병원과 친한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런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비교적 좁은 범위의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 속한 '짧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에서도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 학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원내 진입을 추진하는 정당으로써 녹색당이 보건의료 의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생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상 전원 의료인과 의료계열 학생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이나 보건의료 노조 등이 이미 이 의제를 훨씬 잘,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또 의료인 비중이 낮은 청년녹색당으로서도 이 소재를 탈핵이나 성소수자 의제와 동일한 위치에 놓고 접근하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쉬운지 안 쉬운지는 일단 알아야 될 일이니깐요. 보건의료의제에 대해 주마간산식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본론

우선, 보건의료 의제의 가장 기본적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일차 보건의료를 중시합니다. 이것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건강권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건강할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 그들을 병들게 하는 원인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운동은 사회를 건드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칠게요. 이 사람은 반도체를 다루는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보호 장구를 제대로 착용할 수 없었어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 한 후 발병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은 핵발전소 인근에 삽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분은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질환이 있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미루다가 병을 키웠어요. 이 분에게는 파트너가 있지만 동성이라서 파트너의 실비보험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아요.

또 다른 예도 있죠. 미숙아로 태어나 사망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그 근처 민간병원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생아 중환자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공병원에는 국가 지원이 적어 유지가 되지 않아 폐쇄됐다고 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지역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에 죽었습니다. 이런 사례 우리나라에 많아요.

20대 여성이 있어요. 이 분은 자살했고, 젖먹이 아이가 있는 미혼모예요. 학자금 대출도 다 갚지 못했는데 사회적 시선은 따갑고 취직도 안됐어요. 설령 된다 해도 아이를 길러 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 분을 죽인건 자기 자신일까요 앞날의 암담함일까요.

지금까지 모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사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정규직과 노동환경을 포함한 노동문제, 탈핵, 성소수자 인권, 지역균형과 공공의료, 여성 인권과 미혼모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모두의 건강은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는 필연적으로 몹시 사회적이며 많은 단체들과 연대합니다.

녹색당은 어쩌면 개중 가장 밀접하게 연대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가장 성 평등에 가까이 간 정당이며, 탈핵, 성소수자, 노동, 어느 의제에 있어서든 가장 평등을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녹색당이 보여주는 평등과 평화로운 연대는 건강의 가장 큰 조건이며, 보건의료계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진보진영과 녹색당이 연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호 연대는 가능하나, 녹색당이 보건의료의제에서 맡을만한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보건의료의 수요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회의 건강을 목적으로 봤을 때, 이 수요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여기서의 건강은 총체적인 건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의 공급은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하죠. 또 전문적 기구,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연구, 개발을 겸하여 의약품이 필요합니다.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위 사항의 공급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결과가 국가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돌 때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보건의료를 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보건의료를 다루는 시스템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SSA, 즉 국민의료보험을 하고 있고 미국처럼 약자를 위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제외하고 개인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쿠바나 영국처럼 NHS를 도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 한국 의료제도인 SSA는 보험 형태를 띠고 국가와 기업, 개인이 함께 비용을 부담합니다. 장점은 많은 분들이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단점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SSA의 문제는 공공성이 심각하게 낮다는 겁니다. 의료기관까지 커버할 의무가 없으니까 국가는 병원의 개선을 모두 민간에 맡겼습니다. 덕분에 공공병원은 고작 6%에 불과하고 94%에 달하는 병원이 모두 민간 병원입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민영화의 위험과 비슷합니다. 민간, 특히 이토록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맡을 만큼의 재정을 보유한 민간이, 오랜 기간의 교육으로 걸러진 결과 특권의식과 보수성을 가진 의료인 집단의 관행과 만나면 별로 좋은 꼴 못 보겠죠. 거기다 수요는 하기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의료제도는 민영화되기 아주 쉽고, 또 민영화 후에 치명적으로 위험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의 1차 의료기관들은 3차 의료기관과 경쟁합니다. 1차 보건의료의 역할에는 별로 충실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개원의 입장에서 보면 면허 따는데 쓴 비용과 병원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생각하면 부지런히 돈 벌어서 본전 뽑아야 되니까요. 또,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들은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유지비용은 많이 들고 돈 벌기는 힘든 부서에 투자하기 꺼립니다. 덕분에 우리가 익히 알듯이 어느 병원이나 응급실은 아주 엉망진창이죠. 돈을 벌기 위해 수가에 들어가지 않는 쓸데 없는 과잉진료가 횡행하고, 별 필요 없지만 PET이나 MRI 같은 사진을 몇 번씩 더 찍거나 별 필요 없는 수술도 합니다. 3차 대형병원은 환자를 짝 쓸어가서 환자 1명당 1분 보나요? 여기에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30초 볼까요?

의료보험 흑자가 13조 낮아졌지만 이건 폭탄 돌리거나 다름없는데 민간 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금,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나눠먹을까를 생각합니다.

거기다 정부는 메르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을 탐색하고 공공성을 확충할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중등 환자를 유치해서 돈을 벌어볼까를 고민합니다.

여기에 조만간 다자간 무역협정 같은 게 넘어가서 의약품 특허권이 목을 졸라오면 끔찍하겠죠.

의료인들 또한 고질적 문제입니다. 잘 타파되지 않는 보수성과 권위주의는 위에 기술한 문제들을 내 부로부터 개선할 의지를 짓누릅니다. 대체로 병원 내로 들어간 의료계열 활동가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진보 성향의 학생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삶이 몹시 고달픕니다. 이 경향은 사라지기 쉽지 않습니다.

좀 편하게 살려면 집단의 논리를 내면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익집단화에 아주 큰 몫 합니다. 환자 당 의료인 비율이 OECD 내에서도 심각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수가 많아지면 수익률에 문제가 생길까봐 의대 입학생을 제한합니다. 규제 기요틴 때문에 한의사랑 의사는 패싸움 하고 있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계열에서 오랜 시간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사람들은 또 다른 꼴대로 자라납니다.

환자당 간호사 수가 적어 엄청난 수의 환자를 떠맡아야 하는 간호사들에게 태움 문화나 임신순번제 같은 게 생기는 건 그들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환자를 대하며 조율하는 간호사들에게 떨어지는 괘시나 심각한 노동 강도는 50%에 달하는 유희인력이 왜 생겨났는지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뜬금없이 간호대를 늘렸고, 덕분에 간호학은 더 이상 취직 잘 되는 전공이 아닙니다. 경쟁을 거치면서 이들은 더욱 스스로를 착취하는데 익숙해 것이고, 노동조합 같은 데 들어가거나 보건 의료계 내부 문제에 저항하는 건 지금보다 더 어렵겠죠. 실제로 간호사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계속 떨

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의료계 내부의 진보 세력은 다른 계열에 비하면 매우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딱히 다른 대안도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의 진보진영은 크게 둘로 양분됩니다.

첫째, 병원 내 노동조합.

둘째, 전문가(의료인)와 활동가로 이루어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어쨌거나 이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는 세력을 형성하기 쉽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파업을 통해 병원 수익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게 가능한 노동조합과, 면허에서 오는 후광을 칼처럼 휘두르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도 밥줄 끊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직업군이 아니라면 이 거대하고 폐쇄적인 괴물 앞에서 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결론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운영위원으로서, 저희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학교 내의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각각의 회원들이 학교에서 겪어 온 고달픔을 말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스스로 권위주의의 문제를 느낀 학생이 의료인이 되어 내가 속한 부서, 분과, 병원, 병원들을 변화시키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잘 안 됐고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위에 설명한 복잡한 내용들을 기회 닿는 대로 알리고 다녔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포럼도 열고 캠프도 하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대중적으로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물론 잘 안 됐고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할 겁니다.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TPP, 뭐가 됐건 우리는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됐고 잘 안 되고 있지만...

보건의료계에서 뭐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잘 모르셨던 분이 많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무엇 하나 쉽게 얻어낸 것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렇다면 청년으로써, 또 녹색당원으로써 이 쉽지 않은 의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이 딱 나오면 영의정 좌의정 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이 문제는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청년’이 녹색당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

한영섭 당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량당원 한영섭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청년들을 위한 관계금융인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부설기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현명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사람중심 경제생활문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청년문제 중에서도 ‘부채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이 녹색당을 선택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나름의 고민을 풀어보겠습니다.

1. 나는(청년) 왜 녹색당을 선택 했나

집담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망막했습니다. 그러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듯해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색당 당원이 된 것은 2013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전 창당할 때부터 녹색당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눈팅만 하고 있다가 당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저의 정치이력(?)을 잠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될 때 까지 투표도 하지 않았던 불량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다 故노무현대통령 서거 이후 개안(?)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책도 읽어 보고 강연회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다 2010년 문성근대표가 주도했던 유쾌한 백만민란 ‘국민의 명령’에 참여하게 되었고, 2011년엔 부산지역 접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혁신과 통합’ 발기인, 시민통합당을 거쳐 민주통합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와 중에 19대 총선 부산000 지역구에서 참모역할을 하면서 생애 첫 선거를 경험하였습니다. (선거는 아깝게 낙선을 했습니다. 아마 선거에서 이겼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부산에서 정치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으면 ‘빨갱이’소리를 듣는 것은 예사고 좌판을 찌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과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소위 ‘운동권’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생활인에 진하지 않았지만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선패배로 정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때마침 청년문제와 청년활동에 적극결합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 느낀 지점은 ‘기존 정당 구조에선 변화를 만들기 어렵겠다.’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녹색당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녹색당원 되겠다고 결심한 2013년 12월 28일을 되돌아보면 아마 제 마음속에선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험을 통해 얻게 된 ‘새롭게’와 ‘긴 호흡’. 이러한 요소가 저를 당원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녹색당이 ‘새롭게’와 ‘긴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에 명확히 부합되었다기보다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심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녹색당을 선택한 이유를 꺼내놓는 것부터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2. 녹색당은 청년에게 새로운 대안인가

앞서 말씀드린 ‘새롭게’와 ‘긴 호흡’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합니다. 우선 ‘새롭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우선 과정의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1 과정의 새로움

녹색당의 강령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접·참여 민주주의로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은 다른 정당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아주 신선하고 새로움으로 다가 왔습니다. 추적을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발상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당내에서 적극 도입한다는 것은 과감하고 ‘발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의 또 다른 새로움은 ‘청년녹색당’ 자체입니다. 다른 정당에서도 대학생·청년위원회 형태로 존재하지만 ‘청년녹색당’과 같이 독자적인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점에선 새롭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공동위원장과 운영위원회를 두고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녹색당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족을 준비 중인 ‘청소년녹색당’의 시작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청년새정치연합(일명 ‘청년당’)으로 위원회 격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선 ‘청년녹색당’의 가치가 퍼져 나가고 있다고 봐야 할듯합니다.

또한 녹색당의 새로움은 활발한 해외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 총회 참가를 비롯한 여러 활동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해외의 상황을 인식하고 국제연대를 해나가는 데 있어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정당과 확연히 다른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 결과, 대안의 새로움

앞선 이야기는 ‘과정’의 새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움은 결과로서의 새로움 즉 ‘대안세력으로써의 새로움’을 주고 있느냐의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안의 새로움’은 우리 녹색당이 추구하고자하는 철학 즉 ‘강령’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언어’로 표현되고 그 수단인 ‘정책언어’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의 정책 언어와 우리 녹색당의 언어를 비교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데 참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치루어지 2014년 지방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첨부 참조>

우선 새누리당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누리씨의 행복드림’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첫 번째로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 두 번째 분야는 골고루 잘살고 활력 넘치는 지역. 세 번째 분야는 꿈과 희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80가지로 공약하고 있습니다. 슬로건과 분야를 보면 대한민국을 정말 구할 듯 합니다.(진짜 그럴지는 미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포커스는 ‘생활자’라고 하는 생활언어를 중심으로 정책을 나열 한 것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생활공약’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8가지 권리와 32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의 슬로건 아래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와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두 가지 부제를 가지고 공약했습니다. 1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부터 마지막 ‘튼튼한 지방재정’으로 약간은 딱딱한 정책언어로 표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동당의 경우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지역사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6대 분야로 나누어 공약

을 했습니다. 표현하는 언어 방식은 당의 성격답게(?)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분량 중 가장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녹색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생명을 위한 정치’ 슬로건 아래 10개 분야로 나누어 공약을 했습니다. 역시나 녹색당 답게(?) 따뜻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각 정당별 지방선거 국면에서 슬로건과 공약의 표현을 거칠게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정책의 내용은 차지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을 해보자면 모든 유권자는 ‘생활인’이라는 관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의 표현방식이 직접적이면서 매력적으로 다가 왔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책의 당사자의 고민을 들어내는 방식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표현방식도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기에 유효했다고 판단됩니다. 집권당으로써의 안정감과 정책의 단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진보정당들의 표현은 상대적으로 딱딱하고 문제를 들어내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당사자의 물음에 직관적인 답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대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녹색당의 가야할 길이 아직 남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녹색당의 부족한 지점은 저번 1차 집담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질 ‘청년정책’의 실종입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정의당은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청년들 삶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청년을 위한 지구정착프로젝트’, ‘설레이는 첫노동, 청년일자리 확대’ 새누리당의 ‘도전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이 일터에 실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우리당은 다른 정당보다 구성비율로만 보면 가장 많은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이 없다는 것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녹색당을 선택하기엔 부족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녹색당에는 이외에도 제가 발견하지 못한 다양한 ‘새로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움은 청년들이 기존정당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을 우리 녹색당이 채워 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청년들을 유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 정당과의 ‘차이’를 들어내고 청년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움이 청년들의 삶의 현장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청년들의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청년들은 어떠한 새로움에 기대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답을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3. 녹색당은 ‘긴 호흡’이 있는가

저의 두 번째 키워드는 ‘긴 호흡’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 호흡’이라는 것은 녹색당은 지금당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100년을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 녹색당 강령

우리 녹색당 강령 첫 문장에서 잘 보여지 듯 우리당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녹색당이 미래다’ 라고 외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럼 녹색당은 한국사회와 전 지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국가를 운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당이 지금 집권을 한다면...’을 상정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그릴 수 있도록 국가 비전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저는 녹색당이 과거로의 회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의 담대한 도전 즉 개인과 공동체의 성숙·발전된 사회로의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녹색당은 미래를 위한 준비, ‘긴 호흡’이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 당의 정책으로 채택한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긴 호흡을 위한 ‘미래성숙위원회’ 발족을 건의합니다. 국가적인 과제와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담대한 준비를 우리 녹색당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성숙위원회’에서는 우리 한국사회 5년, 10년 100년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전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녹색당을 대안정당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긴 호흡’은 ‘기다림’을 뜻하기도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당은 ‘호흡’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타 정당의 공약집을 살펴보면서 유일하게 우리당만이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마추어처럼 비추어 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점은 자랑해도 될 만했습니다. ‘기다림·긴 호흡 = 속의·참여·직접민주주의’와 등식이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어떻게 청년이 녹색당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청년이 녹색당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저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첫째로 녹색당은 ‘새롭다’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시작’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하고 역동적입니다. 우리 녹색당은 청년에게 해볼만 한 정당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조직운동을 통해 누구나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정당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녹색당은 ‘청년당’입니다. 녹색당과 청년녹색당은 별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의 느낌은 ‘청년스럽지’ 못합니다. 여기서 ‘청년스럽다’는 표현은 논쟁의 요소가 있지만 외형적인 측면과 내형적인 측면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외형적인 요소로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정책공약 디자인을 보아도 청년들에게 아주호감이 가거나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형적인 측면에선 과감한 청년정책을 생산하고 알려내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우리 녹색당은 ‘청년당’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하게 되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녹색당은 ‘미래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10년, 100년 농사 짓는 마음으로 국가 전략을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립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아젠다를 모아 우리가 바라는 구체적인 일상의 장면을 중심으로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만들어 청년들 스스로 국가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안정당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미래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고, 청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록 - 정당별 2014년 지방선거 공약>

<새누리당 2014년 지방선거 공약집>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누리씨의 행복드림

1.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
국민안전) 최우선 대한민국 안전, 기본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가족행복) 2014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체감) 100°C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2. 골고루 잘살고 활력 넘치는 지역
건강한 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재정이 강화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3. 꿈과 희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
늘어나는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는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를 살리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어촌) 농어촌 지역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힘찬 미래)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 새누리당 홈페이지, 6.4지방선거 정책공약집, 2014년, 총 234쪽

<새정치민주연합 2014년 지방선거 공약집>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생활공약

1. 생활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
의료) 아플 때는 누구나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전) 일상생활이 위협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아이들 키우는데 드는 교육비 낮출 수 있도록
교통) 생업을 위한 교통의 이용만큼은 막힘이 없도록
주거)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통신) 통신비 걱정 없이 통신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새정치) 내 생활의 권리가 투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2. 엄마이면서 여자를 위한권리
워킹맘 생활자) 일하는 엄마의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부 생활자) 마이너스 가계부는 이제 그만! 생활비 부담 짝짝 줄여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생활자) 아이 키우는 부담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3. 가족이 최고인 가정들을 위한 맞춤형 권리

베이비부머세대 생활자) 굳어진 중년의 얼굴을 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생활자) 전월세 비용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하우스푸어 생활자) 대출 빚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생활자) 이웃의 정을 나누며 합리적인 아파트 생활을 보장합니다.

4. 월급쟁이들을 위한 실속권리

직장 생활자) 직장 생활자의 앓은 지감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생활자) 차별없는 직장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저임금 생활자) 생존을 넘어서, 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생활임금 제시하겠습니다.

퇴직 생활자) 일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 취업, 군대, 결혼에 집중한 대학생·청년권리

대학생활자) 젊은이가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군대생활자) 안전하고 보람있는 병영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백수 생활자) 일하고 싶은 청년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신혼 생활자)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 없이 신혼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생활자) 혼자사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자영업, 중소기업인,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 일하는 이들을 위한 안심권리

자영업 생활자) 임대료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생활자) 소신껏 사업하실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농어민 생활자)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생활자) 문화예술인과 국민 모두가 즐거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7. 꼭 함께 해야 할 생활자들을 위한 특별권리

장애인 생활자)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생활자) 달라도 차별 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8. 당당한 노후를 위한 권리

실버 생활자)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2모작을 돕겠습니다.

독거 생활자) 그물같은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호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참고,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6.4지방선거 정책공약집 ebook, 2014년, 총108쪽

<정의당 2014년 지방선거 공약>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

-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

-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1부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 - 4대 분야 10대 공약

1.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국가재난안전시스템 전면 개혁
 - 책임지는 정치, 관피아 척결
 - 생명을 살리는 안전사회로의 전환
2.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안전기업 육성
 - 위험기업 퇴출
3. 핵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방사능 걱정 없는 학교
 -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4. 골목안전으로 여성아동 안심사회 실현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 아동 안전벨트 구축
 - 1인가구 여성 주거커뮤니티 지원

2부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3대 분야 10대 공약

안전안심 골목복지 3대 약속

1. 시민이 만드는 지방복지정부
 - 주민 삶 기본을 지키는 '복지기본선' 도입
 - 마을이 학교다 지역 교육공동체 복원
 - 건강한 주민, 활기찬 골목
 - 생애토대가 되는 주거복지 실현
 - 더불어 사는 골목공동체 실현
2. 활력 넘치는 사람투자 지역순환경제
 - 지자체가 선도하는 질 좋은 일자리
 - 갑의 경제를 넘어 을 편한 경제
 - 바람과 햇살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 함께 사는 도시와 농촌
3. 튼튼한 지방재정
 - 지방 재정주권 실현, 활짝 피는 복지 지방자치

참고, 정의당 홈페이지, 2014년, 총 224쪽

<노동당 2014년 공약집>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지역사회

1. 모든 민영화 STOP / 3대 분야 안전 규제 강화
2. 방사능 없는 지역사회 / 핵 없는 한국사회
3. 사회양극화 해소 이윤보다 사람
4. 지역부터 보편복지, 빈틈없는 골목복지
5. 일과 쉼, 문화가 어울린 지역사회
6. 참여와 견제. 지역사회 혁신

참고, 노동당 홈페이지, 2014년, 총103쪽

<한눈에 보는 녹색당 지방선거 정책>

생명을 위한 정치

1.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2.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
3. 햇볕 드는 집,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
4.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기후변화와 재해에 안전한 도시
5. 방사능과 유전자조작,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
6.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7. 동네에서 먹고 살자
8.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한 세상
9. 중요한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
10.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우리 동네

참고, 녹색당 홈페이지, 한눈에 보는 녹색당 지방선거 정책, 2014년, 총103쪽